

News

은행채·코픽스 여전한 오름세...주담대 7%대 가나

아시아경제

금융채 5년물 금리, 8일 기준 4.136% 기록... 작년말대비 1.84배 증가... 지난달말부터 4%에 접어든 후 1일에는 4.397%까지 치솟아... 코픽스도 꾸준한 상승세... 최근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경쟁으로 자금조달 비용 증가 영향... 이러한 추세면 조만간 주담대 금리 7%대 가능하다는 전망도 존재

은행 자금줄 마른 PF... 지방건설현장 멈췄다

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기 고금리인 2금융권 및 3금융권의 PF대출 노출 사업장 증가 중... 기준금리 가파르게 오르며 PF 건전성 크게 악화 중... 은행권 PF대출 연체잔액은 65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6억원 감소... 연체율은 0.02%로 작년말대비 0.01%p 하락... 반면 비은행권 연체잔액과 연체율은 악화

'콜라보 맛집' 된 인터넷은행 플랫폼

한국경제

케이뱅크, DB손해보험과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서 여행자보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 자체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제휴사 금융상품 소개에 공들이는 중... 금융 플랫폼 겨냥한 인터넷은행들의 행보 이어지는 중... 플랫폼 수수료 이익까지 타겟...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퍼스트 발행어음 등 제휴사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 출시

'킹달러'에 줄어든 해외직구...해외여행에 기대는 카드사

머니투데이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10억 3,000만달러... 1분기 대비 약 9.2% 감소, 작년 4분기대비 19.6% 감소...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자 해외직구족들의 지갑 닫혀... 카드업계,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기대거는 중... 각종 입국 규제 풀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 증가

손보사 만기보유증권 더 늘린다...2년새 40조 '깡충'

연합인포맥스

손보사들의 만기보유증권 잔액, 올 6월 말 기준 64조 3,164억원까지 급증... 2년만에 40조원 이상 급증...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채권재분류 단행...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확대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 예상... 향후 매도가능증권 비중 100조원 하회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금리인상에 늘어난 채권 수익률...생보사 투자영업수익 30% 상승

CEO스코어데일리

국내 생보사 23곳, 투자영업수익이 올해 상반기 기준 24조 3,6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 삼성 26.7% YoY, 교보 41.5% YoY, 한화 24.2% YoY 증가... 투자 수익 증가 원인으로 금리 인상... 덕분에 채권 수익률 개선돼... 다만 비용 제한 투자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하락세... 운용자산이익률 평균 3.3%... 포트폴리오 재정비 분주 예상

한투궤, 카뱅주식 직접 취득...인뱅과 시너지 효과 커질까

서울경제

한국투자증권, 최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 산업자본이 특례법 및 은행법상 10,25,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 승인 필요... 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5년 경과해 상황 변화... 주식 취득에 걸림돌 사라져... 승인 얻으면 카카오뱅크와의 연결고리 강화 예상... 펀드 판매 준비 돌입 상태

증권업계 역성장 만회 기회로...움츠렸던 IPO 시장 '기지개'

CEO스코어데일리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IPO를 통해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43곳... 전년동기간 60곳 대비 28.3% 감소한 수준... 증권사 인수 및 주선 수수료 수익 역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 다만 하반기에는 예정 공모주 청약 6건, 컬리와 11번가의 상장 절차 진행 중인 점 등 IPO 시장 활기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